Weekly Newsletter

KITA 도쿄지부

8월
제4호

2021年8月23日

Vol. 75

주요 내용

○ 금주의 경제·통상정보

- 日정부,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
- 세계 반도체 업체, 증산준비 급피치
- 日, 코로나 지원책 11월말까지 연장

○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

- 日, 7월 무역수지, 2개월 연속 흑자
- 日, 6월 기계수주 4개월 만에 마이너스

KITA TOKYO
〒100−0014 東京都 千代田区 永田町 2−13−10 プルデンシャルタワー3階
Prudential Tower 3F, 2−13−10, Nagatacho, Chiyoda−ku, Tokyo 100−0014, JAPAN
TEL : 81−3−6826−5170 / FAX : 81−3−6826−5171/5172
Copyright © KITA All right reserved.

금주의 경제·통상정보

1 日정부, 희토류도 외국인투자 중점심사 대상으로

□ **일본정부(재무부 등)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(코어 업종)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,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**

○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(공급망)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,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

○ 추가대상은 희토류, 코발트, 티타늄 등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된 금속광업과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, 광물성분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임.

□ **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,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**

○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"코어 산업"은 당초 무기, 원자력이나 철도,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,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, 이번에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됨.

<외환법상 중점심사 대상확대 변경 주요 내용>

2020년 6월 적용	- 무기, 항공기, 우주관련, 원자력관련, 구사전용가능한 범용품, 사이버시큐리티관련, 전력업, 가스업, 통신업, 상수도업, 철도업, 석유업
2020년 7월 적용	- 의약품, 의료기기
2021년 11월 적용(예정)	-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관련업종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2 세계 반도체 업체, 증산 준비 급피치

□ **세계 주요 자동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, 코로나19 감염확대 지속에 따른 부품조달 어려움 등으로 자동차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가운데, 반도체 대기업은 반도체 증산준비에 급피치를 내고 있음.**

○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19일, 9월의 세계생산을 40% 감산을 발표

- 도요타자동차는 그동안 반도체 부족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,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은 동남아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대로 부품조달이 정체

○ 혼다는 8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공장에서 7월말 생산계획의 20%에 해당하는 2만대를 감산

- 반도체 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의 부품조달이 중단

○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(VW)과 미국 제너럴모터스(GM) 등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지난해 말 이후 주로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감산을 지속

□ **세계 반도체 대기업은 반도체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증산준비를 진행, 원재료 등의 사재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.**

○ 자동차나 가전의 디지털화, 5G 통신의 보급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, 각사는 증산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○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을 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비축, 필요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실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

- 주요 9개사[1]가 안고 있는 최근 4분기의 재고자산(완제품, 재공품, 원재료)을 합하면 6월말(일부 5월말 포함) 647억달러(약7조엔)로 사상 최고 수준

1) 재고자산의 집계대상은 台湾積体電路製造(ＴＳＭＣ), 미국 인텔, 한국 삼성전자,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, 한국 SK하이닉스, 미국 웨스턴디지털, 미 텍사스인스트루먼트,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, 스위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

□ **한편으로는 반도체 각사는 현재의 실적은 호조이나 향후 시중의 재고과잉을 경계하고 있음.**

○ 반도체의 시황은 큰 변화를 거듭, 호황기의 증산 투자가 완성될 때의 시황이 악화되면서 생산능력의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

○ 당장의 생산능력 증강도 체제가 갖추어지는 데에 2~3년 후가 되어 시황에 따라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.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3 日, 코로나 지원책 11월말까지 연장

□ 일본,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원책 신청기한 연장

○ 일본 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의 연장과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원책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음. 이를 통해 감염 제5파로 타격을 받은 사업자 및 빈곤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

- 국가가 휴업수당 일부를 대신 지불하는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는 9월말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11월 말로 연장하였음
-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지역으로 영업시간의 단축 권고에 따른 기업에는 종업원 1인당 1.5만 엔을 상한으로 지급함
-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필요해진 국민에게 최대 20만 엔을 대출해주는 긴급소액자금(緊急小口資金)과 실업 후 다시 자립해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최대 60만 엔을 대출해주는 종합지원자금(総合支援資金) 특례대출제도 또한 8월 말까지였던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함
- 대출 상한에 도달하는 등 빈곤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엔을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함

○ 이에 대한 재원은 4월에 만든 교부금 잔액 2천억 엔과 작년도 제3차 보정예산 이월액 1천억 엔으로 충당함

＊ 일본 후생노동성의 특례대출(特例貸付け)제도

1. 긴급소액자금(緊急小口資金)
 ○ 10만엔~20만엔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기한 2년 이내)

2. 종합지원자금(總合支援資金)
 ○ 3개월 이내 월 15만엔~20만엔(거치기간 1년 이내, 상환 기한 10년 이내)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금주의 주요 경제지표

1 日 7월 무역수지, 2개월 연속 흑자

□ 日 7월 수출 37% 증가, 무역수지 2개월 연속 흑자

○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**7월의 무역통계**(속보치)에 따르면 전체 **수출금액은 7조 3,56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비교 37.0%의 증가율**을 보이며 5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기록함.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수출액이 감소했던 반등도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이전인 2019년 7월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임. 수출액은 7월 기준으로 2008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

-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철강 수출이 88.3%, 자동차 부품 수출이 60.1%, 자동차의 수출이 43.5%로 두 자릿수 증가하였음

-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조 5,807조 엔으로 18.9% 상승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, 미국으로의 수출은 1조 3,841억 엔으로 26.8% 증가, 5개월 연속 성장하였고, 유럽으로의 수출도 6,400억 엔으로 46.1% 증가하며 증가세를 보였음

○ 한편, 7월 전체 **수입금액은 6조 9,15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비교 28.5%의 증가율**을 보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

- 품목별 수입액을 보면 석유제품의 수입이 116.0%, 철광석이 206.6%, 비철금속이 81.9% 상승하면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갔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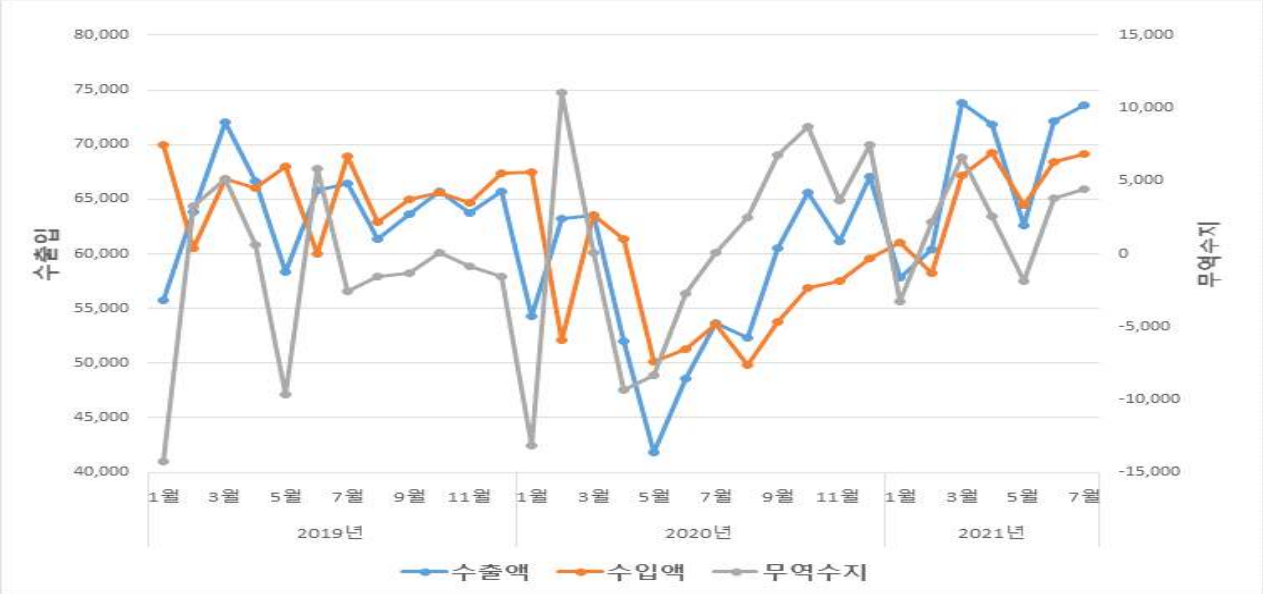
  · 석유 제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 수입의 양 자체는 줄었으나 총 금액 기준으로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음. 지난달에 이어 철광석과 비철금속의 성장도 크게 늘었음

  · 또한, 신형 코로나 백신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의약품 수입이 94.6%, 41.9%의 증가를 보였음

○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,410억 엔 흑자를 기록, 흑자는 두 달 연속임

<일본의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>

(억 엔)

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(통관기준)를 이용하여 작성

<월별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동향>

(억 엔,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%)

	'20 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'21 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**7월**
수출액	53,689	52,327	60,551	65,658	61,136	67,062	57,796	60,380	73,781	71,811	62,613	72,208	**73,564**
수입액	53,572	49,844	53,801	56,966	57,511	59,566	61,049	58,206	67,144	69,258	64,484	68,376	**69,154**
무역수지	117	2,483	6,750	8,692	3,625	7,496	-3,239	2,174	6,637	2,553	-1,871	3,832	**4,410**

자료원 : 재무성 무역통계(통관기준)를 이용

2 日, 6월 기계수주 4개월 만에 마이너스

□ 2021년 6월 기계수주 4개월 만에 감소세

○ 내각부가 18일 발표한 **2021년 6월 기계수주 통계(계절조정치)**에 따르면 기업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수요(변동이 큰 선박과 전력은 제외) 수주액은 **전월 대비 1.5% 감소한 8,524억 엔을 기록함. 기계수주 통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4개월 만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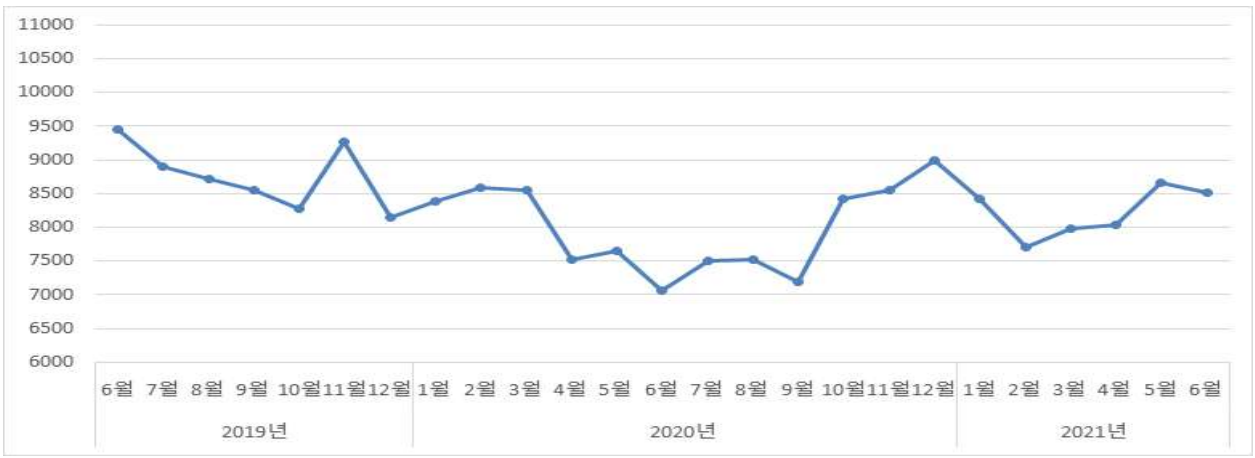
○ 수요자별로 보면 **민간수요는 전월 대비 0.4% 감소**한 9,925억 엔, **공공분야는 전월 대비 2.8% 감소**한 2,576억 엔, **외부 수요는 전월대비 10.0% 감소한 1조 2,205억 엔을 기록**했음

- 다만, 민간수요 중 제조업은 3.6% 증가하여 4,039억 엔, 비제조업(선박과 전력은 제외)은 3.8% 증가하여 4,705억 엔을 기록했음

○ 기계수주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일본 정부의 기조판단은 기존의 "회복으로의 움직임이 보임"을 유지하였음

<일본의 최근 기계수주 동향>

(계절조정치, 단위: 억 엔)



자료원 : 내각부 기계수주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

<월별 일본 기계수주 동향>

(계절조정치, 단위 : 억 엔, %)

	'20. 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'21. 1월	2월	3월	4월	5월	**6월**
기계수주액 (선박전기제외)	7,066	7,513	7,525	7,193	8,425	8,548	8996	8,417	7,698	7,981	8,029	8,657	**8,524**
증감률 (전월대비)	-7.6	6.3	0.2	-4.4	17.1	1.5	5.2	-4.5	-8.5	3.7	0.6	7.8	**-1.5**

자료원 : 내각부 기계수주통계를 이용하여 저자작성

. 끝.